

연안여객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밀착 현장 점검 실시

- 3. 14.(목)부터 연안여객선 25척 안전관리 이행실태 집중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선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4일(목)부터 6월 28일(금) 까지 연안여객선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예비선을 포함해 총 2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연안여객선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사 간담회 10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선 운항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선령 20년이 넘는 연안여객선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장비의 관리 실태는 물론, 여객 신분증 확인과 차량 고박 여부 등 안전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종사자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연 5회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행되는 전수점검* 등 일반적인 점검 외에도 「해운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반기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설 연휴 / 봄 나들이철 / 여름 휴가철 / 추석 연휴 / 겨울철

** 운항관리자 점검 / 선체·기관·소방·조타·통신·전기 등 작동상태, 구명설비 상태 등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여객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유윤진 (044-200-5738)

참고

여객선 점검 사진

